

# 제23-28호 주간 집단에너지 동향

Weekly News Update on CHP/DHC

2023.7.19. (수) 2023. 7. 17.(월) 17:00 기준



# 1. 국내 주요 단신

## 1 청정연료 전환 대구열병합 건설 순조(이투뉴스, 2023.7.16.)<sup>1)</sup>

### ▶ 발전소 공정률 73%, 내년 4월경 시운전 예정...주민민원 해결 필요

- 한남은 대구 성서 열병합발전소의 연료 개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예정대로 건설이 마무리될 경우 내년 4월 시운전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.
  - 1997년에 건설된 대구 성서 열병합발전소(270MW)는 당초 저렴하고 열량이 높은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다 대기오염 촉발 및 노후화 등 주민 요구에 따라 연료를 LNG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함.
- 해당 발전소는 현재 대구시 달서구, 서구, 달성군의 11만 세대에 지역난방 열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번 연료 전환을 통해 대구시의 전력자립도를 18.2%에서 29.2%로 개선할 수 있음.
- 다만, 열병합발전소 연료의 직공급을 위해 필요한 가스공사의 중리 정압기지 설비개체 공사에 대한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일부 차질이 우려됨.

## 1 부산에너지 특별법 통과, 집단에너지사업 운명은?(에너지플랫폼뉴스, 2023.7.12.)<sup>2)</sup>

### ▶ 정책흐름에 부합한 집단에너지 사업 방향 구축 필요

- 집단에너지 사업이 활발한 해외의 경우 소규모, 분산형, 사용자 중심 모델로 전환되고 있으나 국내 LNG기반 집단에너지는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.
- 부산에너지 특별법 취지에 따라 분산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선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한 기술과 정책흐름에 부합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,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보급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정성 완화 및 회복탄력성 측면에서 집단에너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지역 중심 부산에너지로서 집단에너지 역할을 강화해야함.
- 뿐만 아니라 집단에너지의 기존 전력계통 편익 기여도에 대한 정당한 시장 평가와 지역 전력자립도에 따른 차등 요금제 도입을 통해 지역 중심 에너지 자립화 기틀을 마련해나가야 함.

1) 이투뉴스

2) 에너지플랫폼뉴스

## ■ 분당열병합발전 현대화사업, “지역발전 길 찾아야”(아시아투데이, 2023.7.12.)<sup>3)</sup>

### ▶ 30년 넘은 분당열병합발전…인근 주민 의견 수렴 통한 현대화 필요

- 남동발전은 지난 5월 무산된 분당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7월 중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힘.
- 분당열병합발전소는 1989년 분당신도시 조성 이후 지역 내 전력과 지역난방열을 공급해왔으나 설비 노후화로 인한 효율저하, 환경규제 강화로 현대화 사업이 필요한 상황임.
- 현재 발전소 앞 단독주택 단지 주민 측은 환경피해 보상 및 불법건축물 양성화 해소를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함.
- 반면 열병합발전의 공익적 역할과 함께 대기질 및 경관 개선효과와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기대하며 현대화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도 존재함.
- 남동발전은 주택가 및 아파트단체와 소규모 간담회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며, 민·관·공 상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주민 수용성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임.

## ■ 서울에너지공사, 창립 이래 최대 규모 자구계획 추진(에너지플랫폼뉴스, 2023.7.17.)<sup>4)</sup>

### ▶ ‘비상경영’ 선포…2027년까지 1,798억원 절감

- 서울에너지공사는 러-우 전쟁으로 폭등한 LNG 연료비 대비 열요금은 2022년 38% 인상에 그쳐 심각한 재정 불균형이 발생함.
- 이에 따라 ▲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한 조직혁신 ▲우선순위 따른 사업 조정, 업무 슬림화 ▲예산 절감, 자산 매각, 수익 확대를 통한 재무개선 ▲전사적 비상경영위원회 운영 등 비상경영 추진 방향을 천명함.
- 근본적인 수익 개선을 위한 중장기 방안으로 도봉 연료전지 등 미활용열 연계 사업을 통해 저가 외부수열을 극대화하고 열원시설 운전을 최적화하여 생산 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겠다고 밝힘.
- 또한, 장위 4구역 등 지역난방 공급지역을 확보하여 2025년 이후 3년간 약 37억 7천만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 사업을 적기에 완수하겠다고 덧붙임.

3) [아시아투데이](#)

4) [에너지플랫폼뉴스](#)

# 1. 국내 주요 단신

---

## ■ 전력시장 빅뱅 예고…대기업 신사업 진출 ‘러시’(에너지경제, 2023.7.16.)<sup>5)</sup>

### ▶ 계통유연화 가능하나 전기요금 인상우려…리스크 관리 수단 마련 필요

-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서 오는 10월 제주를 시작으로 전력거래시스템이 대대적으로 변경됨.
  - 재생에너지 전력이 원자력, 화석연료 발전과 같이 구매입찰 대상 전원에 포함되어 물량 및 가격 입찰 경쟁을 거쳐 전력거래소에 판매하게 됨.
  - 또한, 재생에너지 구매입찰 보조시장이 개설되어 재생에너지를 저장하여 수요에 맞게 전력을 거래할 수 있음.
- 이에 따라 다수의 주요 대기업은 영세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전력을 모아 전력 판매를 대행하는 재생에너지 전력 중개 사업에 진출 혹은 준비 중임.
- 전력거래시스템 개편 시 재생에너지와 기존 전원과의 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고, 한전과 민간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전력생산 및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.
- 다만, 향후 민간기업의 이익 추구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우려, 손실 발생 시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 단점도 배제할 수 없어 사업리스크를 관리할 수단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---

5) 에너지경제

